

'1학교 1인성브랜드' 본격 시행

전북교육청, 학교 교육과정 연계... 바른 인성·역량 겸비한 인재 키우는데 목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학교 교육 과정과 연계한 '1학교 1인성브랜드'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기르고,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역량을 강화시킨다.

'1학교 1인성브랜드' 정책은 인성교육진흥법에 근거해 도내 모든 초·

중·고·특수학교 교육과정에 학교별로 수립한 인성교육 계획을 반영해 학생들이 학교 현장에서 바른 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와 관련, 각 학교는 전북 인성교육 3대 핵심덕목(책임, 존중, 세계시민성)과 8개 하위요소(자기정체성, 성실, 지속성, 공감, 효·예, 갈등관리, 평화공존, 생태감수성)를 바탕으로 인성브랜드 주제와 주요 활동을

설정했다.

학교별 인성브랜드 주제와 구체적인 실천활동은 '학생 중심 다문화 자치활동' (책임 덕목), '일상생활 속 따뜻한 말 한마디 실천' (존중 덕목), '지구를 생각하는 탄소 발자국 줄이기 실천' (세계시민성 덕목) 등 핵심덕목별로 다양하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도내 교원들로 구성된 민주시민·인성교육 교육지원

단을 중심으로 학교별 인성교육 실천 사례를 컨설팅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해 1학교 1인성브랜드 정책이 학교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김지유 민주시민교육과장은 "1학교 1인성브랜드 정책을 통해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키우는 인성교육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1학교 1인성브랜드를 중심으로 다양한 인성교육 정책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지역 상생으로 국가교육 발전 기여”

전북대 양오봉 총장, 대통령직속 국가교육위원회 위촉

전북대학교 양오봉 총장이 대통령직속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임기는 2025년 4월 18일부터 2028년 4월 17일까지 3년이다.

17일 전북대에 따르면 국가교육위원회는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교육 비전과 중장기 정책 방향 수립, 교육제도 개선 등을 담당하는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로, 2022년 공식 출범했다. 위원회는 총 21명으로 구성, 국민참여위원회, 전문위원회, 특별위원회 등 산하 위원회를 통해 국민 의견 수렴과 교육 정책 조정을 수행한다.

양오봉 총장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이자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실제하는 중책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전북대에서 추진해 온 교육 혁신과 지역 상생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교육의 비전 수립과 제도 개선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양 총장은 1962년 남원 출생으로 전주고등학교와 고려대학교 화학공학과를 졸업하고, KAIST에서 석사 및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95년 전북대 화학공학부 교수로 부임해 실리문제 태양전지 연구 등 에너지 분야에서 연구력을 인정받았다. 국내외 학술지에 140편의 논문을 게재하고, 국내외 특허 38건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 제29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글로벌대학협의회 초대 회장, 전북특별자치도 국민지원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다양한 직책을 수행하며, 지역 발전과 대학 혁신을 위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전북 1호 IB 워크숍 리더 탄생 | 전주아중초 김태화 교사, 과정 이수 수업 혁신 이끄는 핵심 역할 기대

전주아중초등학교 김태화 교사가 IB 워크숍 리더 자격증을 취득했다.

17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에 따르면 국제 바칼로레아(IB) 프로그램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추진 중인 IBEN(International Baccalaureate Educator Network) 과정에 김태화 교사가 참석했다.

IBEN은 IB 프로그램의 품질 유지를 위해 활동하는 교육자들의 네트워크로 전 세계의 다른 IB 교육자들과 교류하며,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

IB 워크숍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IB 프로그램의 운영 경험이 있어야 하고, IB의 사전 연수를 이수해 전문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특히 국제적 소통이 가능한 언어 능력과 IBEN 선발 절차를 통과하는 것도 필수 조건이다.

이에 김태화 교사는 IB 후보학교 코디네이터로서 전주아중초의 IB 월드스쿨 인증 준비를 총괄·기획하고, 학교의 월드스쿨 인증 추진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김 교사는 “향후 국내외 IB 학교 교원을 대상의 공식 워크숍을 기획



전주아중초등학교 김태화 교사가 IB 워크숍 리더 자격증을 취득했다. 사진은 김태화 교사가 학생들을 상대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이다.

하고 진행하는 등 전북교육청의 수업 평가 혁신을 이끄는 핵심적 리더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거석 교육감은 “현장의 교사가

스스로 도전하고 성장하며 국제적 교육 전문성을 쌓아가는 모습이 매우 고무적”이라며 “이러한 전문성과 실천이 전북교육의 수업 혁신을 이

끄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교사들의 수업·평가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장애학생 수업권 보장 위한 특수교사 지원

전북교육청, 일반학교 특수학급 결·보강 수업지원 순회 교사 운영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장애 학생의 수업권 보장을 위해 특수학급의 결·보강 수업 지원 순회 교사제도를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올해 처음 추진되는 이 사업은 일반학교 특수학급 담당 교사의 예기치 못한 병가·공가·특별휴가 등으로 인해 수업이 결손될 때 학교를 지원하는 제도다.

이에 따르면 그동안 일반학교 특수학급에 대한 결·보강 지원이 없어 장애 학생 개별 맞춤형 수업 보장이 미흡했는데 이번 정책으로 특수학급도 수업 결손을 보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특수교사도 교내에 장애 학생 수업을 담당해 줄 전문 교원이 없어 복무 사용 등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

를 통해 근무 여건 개선이 기대된다.

유·초·중·고교의 특수학급에서 수업 결강이 발생할 경우, 사전에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신청해서 특수교육 순회 수업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는 전주·군산·익산교육지원청에서 7명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이후 평가를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김운범 유초등특수교육과장은 “그동안 일반학교 특수학급 수업 결강에 대한 지원이 없었는데 올해 처음 지원을 시작함으로써 현장 교사는 물론 학부모의 호응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특수교육 현장의 어려움을 찾아내고 새로운 정책을 발굴해 장애 학생과 특수교사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교육청, 학교 관리자 인권리더십 역량 강화 교육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17~18일 이틀간 전주평화의 전당에서 1기 학교 관리자 인권리더십 역량 강화 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학교 관리자들의 인권 감수성을 높이고,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를 조성하고자 마련된 이번 연수에는 도내 유·초·중·고교 및 특수학교 교장 50명이 참석했다.

연수는 △인권친화적인 학교 운영 △인권적 학교 공동체를 위한 학교 규칙 △사제 중심 학교 구성원 인권침해와 대응 △교육공동체 회복을 위한 소통과 조정의 리더십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다룰 예정이다.

특히 인권 분야 전문가들의 강의 등을 통해 실질적인 리더십 전환과 실천을 도모한다.

/장은성 기자

정읍교육지원청 영재교육원 창의·인성·리더십캠프

정읍교육지원청 영재교육원은 18일부터 19일까지 영재교육 대상 학생 58명을 대상으로 국립청소년비오생명센터에서 창의·인성·리더십캠프를 개최한다. 이번 캠프는 학생들의 창의적 사고와 리더십을 키우는 데에 목적이 있다. 캠프는 18일 오후 2시 30분부터 시작돼 19일 오후 1시까지 진행된다.

이번 캠프에는 다양한 전문 강사들이 참여해 학생들에게 지식과 경험을 전수한다. 또한 학생들은 체험 뿐만 아니라 소그룹 활동과 토의 시간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발전시키는 기회를 갖는다. 또한 캠프 마지막에는 학생들끼리의 발표회와 토론이 열려 다양한 아이디어와 의견을 공유하며 새로운 시각을 얻는다.

/정은립 기자

청렴으로 빛나는 리더, 실천 의지 다짐

전북교육청, 고위공직자 대상 청렴리더십 교육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17일 전주학생교육문화관에서 고위공직자 청렴리더십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에는 서거석 교육감을 비롯해 전북교육청 소속 5급 이상 고위공직자와 장학관, 교(원)장 등 850여 명이 참석했다.

교육은 단순한 강의 형식을 넘어 △청렴 관련 법령 및 윤리 가치 교육 △청렴 라이브 태권도 공연 △고위직의 청렴 실천 다짐 결의문 낭독 △유·초·중·고교 및 교육기관 대표가 함께한 청렴 실천 서약 등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조지의 리더로서 갖춰야 할 청렴 가치를 함양하는 등 청렴 윤리를 실천수범하는 중요성을 되새겼다.



17일 전주학생교육문화관에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고위공직자 청렴리더십 교육이 진행된 가운데, 서거석 교육감과 유정기 부교육감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청렴 다짐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청렴교육과 실천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후엔 감사관은 “청렴의 의미가 확장되고 있는 시대일수록 고위직 리더

한 사람 한 사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청렴의 가치를 스스로 실천하며, 전북교육을 신뢰받는 조직으로 이끌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 산불 피해지역 학생에 특별장학금 지급

학생 경제적 부담 경감 통한 안정적 학업 지원 위해 결정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가 최근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본교 학생들에게 5,000만원 규모의 '특별재난지원 장학금'을 지급기로 했다.

이번 장학금 지급은 전북대가 국가거점국립대학교로서의 책무를 다하고, 피해 지역 학생들에게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해 안정적 학업을 지원하기 위해 결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전북대는 4월 18일부터 5월 7일까지 전국의 특별재난지역에 주소 둔 재학생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해당 학생은 시, 군, 읍,면 사무소가 발행하는 피해사실 확인서와 주민등록등본, 특별장학금 신청서 등의 서류를 갖춰 전북대 학생지원과(063-270-2163)로 신청하면 된다. 이후 대학 측은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신청자에게 1인당 1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양오봉 총장은 “지역과 국가발전에 이바지 할 책무가 있는 국가 거점국립대학교로서 우리 학생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나누고 위로하기 위해 특별 장학금 지원을 결정했다”며 “산불 피해로 신음하는 아들이 조금 더 힘을 내고, 하루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우석대, 전북기계공고 3학년 대상 멘토링 '호응'

산업 맞춤형 진로 설계 지원

우석대학교 대학일자리본부가 국립마이스터고인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직무 중심의 멘토링 패키지 프로그램을 운영해 호평을 받았다.

이에 따르면 지난 3일과 17일 이틀에 걸쳐 진행된 이번 프로그램은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고교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산업체 요구와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멘토링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전북기계공업고 3학년 학생 230명은 산업 트렌드 분석과 직무 역량 강화, 자기소개서 사례 구성 방법, 비즈니스 매너 이해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며 직무 능력을 배양했다.



이에 우석대는 학생들이 체계적으로 미래를 설계하고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습득해 졸업 후 성공적인 취업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다.

한편, 우석대학교 대학일자리본부와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는 18일 업무협약을 체결, 학생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과 취업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에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장은성 기자

도내 학교 교감 리더십 역량 키운다

전북교육연수원, 교감 대상 연수... 초·중등 각각 2기로 갈등관리부터 교권 보호까지 현장 중심 맞춤형으로 진행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연수원(원장 민완성)은 '2025 교감 정책 역량 강화 연수'를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연수는 교감의 갈등관리 능력과 교권보호 역량, 실무 전문성을 고르게 강화해 변화하는 교육 환경 속에서 중간관리자로서의 리더십을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수는 초·중·중등 각각 2기로 나눠 총 4개 기수로 운영된다.

이날 진행된 초·중등 1기는 조지문 화 개신과 학교 업무 전문성 강화를

중심으로 △학교 조직을 변화시키는 교감의 갈등관리 리더십 △교감 업무 마스터플랜(Master Plan) 등에 대한 교육이 이뤄졌다.

이어 중등 2기 연수는 22일, 초등 2기 연수는 24일 각각 진행되며, 이 과정은 행정혁신과 교권보호에 중점을 뒀다.

주요 내용은 '갈등을 조율하는 힘: 교감을 위한 소통과 중재의 기술', '법과 절차로 교육활동 보호하기' 등으로 학교 내 갈등 해결 및 교권 보호를 위한 실제적 대응 전략을 공유할

예정이다.

특히 사례 중심의 강의, 실습, 토의, 워크숍 형태로 운영해 이론과 실천을 균형 있게 아우르며, 학교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실질적인 리더십 역량을 강화했다.

민완성 원장은 “교감은 학교의 신뢰와 안정, 그리고 교육활동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 리더”라며 “이번 연수를 통해 교감들이 갈등 상황을 유연하게 조정하고, 교육활동을 법적으로 보호하며 협력적 학교문화를 선도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